

#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A Study on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 in the Chests of Four-Guardian Statutes at the Songgwang-sa, Sooncheon

강 순 애(Kang, Soon-Ae) \*\*

## ◁ 목 차 ▷

- |                           |                 |
|---------------------------|-----------------|
| 1. 序 論                    | 5. 教藏 傳來本과 四天王像 |
| 2. 松廣寺의 沿革 및 重創           | 發掘 教藏의 比較       |
| 3. 天王門 四天王像의 沿革 과 腹藏 調査   | 6. 結 論          |
| 4. 四天王像 腹藏典籍의 書誌的 特徵 및 性格 | <參考文獻>          |
|                           | 附錄: <그림 1-8>    |

## < 초 록 >

이 글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 및 성격을 밝히기 위해 송광사의 연혁 및 중창, 천왕문 사천왕상의 연혁과 복장 조사, 사천왕상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 및 성격, 교장 전래본과 사천왕상 발굴 교장의 비교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에 나온 복장은 정장인 대위덕다라니 권4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이들 교장 11종중 과주묘법연화경 권7은 고려 충숙왕4년에 간행되어 전래된 것이고, 인왕호국만야경소법행초 권5·6과 성유식론술기 권6은 금산사 광교원에서 간행된 사찰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경도감에서 번각한 것이다. 금강비현성록 권3·4는 간경도감에서 정서하여 번각한 판이고, 나머지는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인데, 그중 범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2는 요본을 저본으로 하여 교장도감에서 필사 보각한 것을 간경도감에서 번각한 것이며, 법화문구기 권5·6·7·8은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번각 한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간경도감에서 필사하여 보관한 것과, 16세기경에 보각한 후인판이 섞여 있다.

이들 복장전적은 교장의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국가 보물급으로 지정될만한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서지학, 한국학, 불교학 등의 분야에서 교장을 연구하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요어: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전적 교장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에 의함.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부교수 (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4년 5월 27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 &lt;ABSTRACT&g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 in the chests of four-guardian statues at the Songgwang-sa, Sooncheon.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in the four aspects such as: 1)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Songgwang-sa; 2) the history of four-guardian gates and statues and the investigation of materials from the statues; 3) the physical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scriptures; 4) the characteristics of a newly-found kyojang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mmentaries(what is called Kyojang(教藏)).

These Buddhist scriptures, except Taewidok-darani vol.1 can be called a kyojang. Among these kyojang, Kwaju-myopop-yeonhwakyeong vol.7 published in the fourth year of King Chungshuk(1341) and has been handed down until now. Inwang-hokuk-banyakeong-pophyongcho vol. 5·6 and Songyusikron-sulki vol. 6 were carved at the Kwangkyowon of Kumsan-sa and reprinted at the Kankyongdokam in King Sejo, Chosun dynasty. Kumkangbi-hyunsongrok vol. 3·4 were transcribed by Shin Kyong-bu and carved at the Kankyongdokam. The others of kyojnag were published at the Kyojangdokam in Koryo dynasty and reprinted at the Kankyongdokam. Specially, Pophwakyong-hyunchan-hegotongkum-sincho vol. 1·2 were carved at the Kyojangdokam by using the Liao Edition and reprinted in the Kankyongdokam. It is found that Popwhamunkuki vol. 5·6·7·8 were published by three different editions such as Kyojangdokam Editions, newly carved editions at the Kankyongdokam and recarved editions in the sixteenth century.

It is approved that these sacred books newly found in Songgwang-sa have the various and peculiar characteristics as kyojang and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as a national trea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for research the kyojang and utilized as important resources in the fields of bibliographical science, Korean studies, and Buddhist sciences, and others.

Keywords: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ed in the Chests of four-guardian, Statutes of Songgwang-sa, Kyojang.

## 1. 序論

송광사는 전라남도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조계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21교구 본사이다. 통도사·海印寺와 함께 三寶寺刹의 하나인 僧寶寺刹이며 보조국사 이래로 15국사가 주석했던 선종사찰이다. 사찰의 창건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중창을 거쳐 번성을 구가하였다. 지눌 이후 15명의 국사가 180여 년간 활동한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불사가 이어져 왔다. 삼보사찰로서의 가치는 물론 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은 처음의 초창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광혜군 1(1609)년에 智猨에 의해 천왕문이 중수되었고, 인조 6(1628)년 法欽에 의해 四天王像이 重造된 것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숙종, 순조, 고종연간에 重修改彩되었고, 근래에도 여러 차례 개보수가 있었다. 사천왕의 복장물은 2004년 1월 7일에 고경스님과 송일기 교수에 의해 개봉되었고, 2차 조사는 2004년 1월 1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고경스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복장전적의 재조사는 2004년 4월 12일 천혜봉교수와 본인이 고경스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들 발굴 자료로 인해 세조조 교장 간행의 추가 면모, 각 자료들이 지니는 서지적 특징 및 성격 교장 전래본과의 비교를 통해 교장 판각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의 연구를 위해 송광사의 연혁 및 중창, 천왕문 사천왕상의 연혁과 복장 불사, 복장자료의 서지적 특징 및 성격, 교장 전래본과 사천왕상 발굴 교장의 비교 등으로 나누어 살펴서 송광사의 천왕문 사천왕상의 전적불사의 의미를 제고하고자 한다.

## 2. 松廣寺의 沿革 및 重創

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에 있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

계종 제21교구의 본사이며 大吉祥寺 또는 修禪社라 하였다. 삼보사찰의 하나이다. 송광사는 신라말기에 慧璘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吉祥寺라고 하였다. 그 뒤 고려 인종때 釋照가 중창하려는 뜻을 세워 공인들을 소집하고 자재를 준비하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한 채 죽었다.<sup>1)</sup>

이 절의 중창은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定慧社를 결성하고 그 수행처로 이곳을 택하면서부터이다. 보조국사는 명종 12(1182)년 뜻을 같이하는 10여명과 함께 타락한 고려불교를 정법불교로 바로잡기 위해 정혜결사를 서약했다. 그 뒤 명종 27(1197)년 팔공산 居祖寺에 다시 모여 본격적인 결사운동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넓은 터를 물색하던중 당시 폐허로 변한 길상사를 수행처로 정하였다. 명종 27(1197)년에 터를 다지고 가람건립에 착수하여 9년만인 희종 원(1204)년에 불당, 승료, 재당 등 전각 80여칸이 갖추어졌다.<sup>2)</sup> 이때 희종으로부터 산 이름을 曹溪, 절 이름을 修禪社로 하였다. 보조 이후 제2세 眞覺 慧謹(1178-1234)으로부터 180여 년 동안 15명의 국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조선 초기는 제16세 고봉법장(高峰法藏, 1350-1428)이 태조 4(1395)년에 절을 옛 모습대로 중창할 것을 서원하였고, 드디어 정종 1(1399)년에 절에 수륙사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세종 2(1420)년에는 고봉의 뒤를 이어 中印이 당우를 증축하고 세종 6(1424)년에는 정종때 설립하였던 수륙사를 철폐하고 선종으로 복귀시켰으며,<sup>3)</sup> 세종 9(1427)년에는 중창이 마무리되어 낙성식이 열렸는데 절의 규모가 90여 칸에 달하였다.<sup>4)</sup>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절은 폐허화되었고, 應禪화상이 선조 34(1601)년부터 여러 전각을 중수하였다. 광해군 1(1609)년에는 浮休(1543-1615)선사가 머물면서 증축을

1) 綺山, 松廣寺沿革.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58-86.

‘…開山及重營 新羅時 有僧慧璘者始創 百餘間之小庵而居之 寺額曰吉祥山 名曰松廣 … 高麗仁廟朝 山僧釋照 將欲創成大刹 鳩材集工 不幸身沒 其所成立更皆以爲墟 此是慧璘之開山 釋照之重營 未果者也’

2) 綺山, 松廣寺沿革. 重創之顛末.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58-86.

3) 世宗實錄, 世宗6年 10月 25日條.

4) 綺山, 松廣寺沿革. 第三重創.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58-86.

하였고, 낙성식을 겸하여 600여명의 송광사 승려들이 부휴를 모시고 동안거를 성대히 보냄으로써 근세에 이르는 송광사의 명맥을 부활시켰다.<sup>5)</sup>

현종 8(1842)년에는 낙하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152칸을 소실하였다. 그 이듬해 奇峰(1776-1853)과 龍雲(1813-1888) 두 스님의 노력으로 철종 7(1856)년까지 15년 동안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sup>6)</sup> 이후 栗庵, 九山 玄虎스님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하였다.<sup>7)</sup>

근래에도 여러 차례의 중창이 이루어졌는데, 1923-24년에 龍華堂 寺監庫 明星閣, 華藏樓, 鎮南門 등의 중건과 白雪堂, 靑雲堂, 下舍堂을 중수하였다. 1950년대에는 錦堂과 翠峰 스님에 의해 법당, 요사, 종각 등이 중건되었다. 1969년에는 九山 스님에 의해 1980년대에는 玄虎스님이 뒤를 이어 본격적인 중창을 하였다. 대웅전을 해체하여 원형 그대로 중정 북쪽에 옮겨 짓고 僧寶殿이라 하였다. 대웅전 자리에는 목조대웅보전을 새로 짓고, 그밖에 지장전, 성보유물각, 목우헌 등 20여동의 전각이 신축되었다. 현재 80여동의 전각과 요사가 승보종찰의 장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3. 天王門 四天王像의 沿革과 腹藏 調査

#### 3.1 天王門 四天王像의 沿革

羽化閣을 지나면 천왕문이 있고 천왕문안에 목조의 사천왕상이 있다. 천왕문은 전면4칸(29척), 측면2칸(21.5척)의 건물이다.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불법과 가람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봉안하였다. 東方持國天王은 비파를, 南方增長天王은 칼을, 西方廣目天王은 용을 北方多聞天王은幢(깃발)을 들고 있다.

5) 綺山, 松廣寺沿革. 第四重創.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58-86.

6) 상계서.

7) 상계서.

이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세조조에 처음으로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확한 초창연대는 알 수가 없다. 선조조 정유재란으로 훼손이 되었는데, 광해군 1(1609)년에智罔을 화주로 하여 대목 學正에 의해 천왕문이 중수되었고,<sup>8)</sup> 인조 6(1628)년 法欽을 화주로 하여 四天王像이 重造되었다. 이때 동원된 화원은 應圓·高閑·釋湖·法海·戒雄·釋森·懷澗·天翼·離幻·天然·性悅·三忍·信懷·法端이다.<sup>9)</sup>

숙종연간에는 了眼스님을 화주로 하여 44(1718)년에는 천왕문이 重修改彩되었고,<sup>10)</sup> 46(1720)년에는 사천왕상이 중수개체되면서 화원은 一機·幸坦·混平·碩俊·善覺·善日·夏天·得察·斗珍이 동원되었다.<sup>11)</sup> 순조6(1806)년에는 華峰宇成에 의해 사천왕상이 중수개체되었고,<sup>12)</sup> 고종 1(1864)년에 천왕문의 改瓦重修를 龍雲處益이 관장하였다.<sup>13)</sup> 고종 28(1891)년에는 道淑, 品罕, 其鉉이 사천왕의 중수개체와 천왕문의 개체를 주도하였다.<sup>14)</sup>

8) 松廣寺志. p.25-26.

“光海君1年己酉(1609) 秋冬. 天王門重修. 助役 浮休, 緣化 智罔, 大木 學正, 別座 海天”

9) 四天王與丹墮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630); 四天王創造及重修記(松廣寺史料 p.63-64);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仁祖6年戊辰(崇禎1, 1628) 四天王塑像重造. 證明 待價熙玉, 持殿 印清, 別座 圓一, 化主 法欽, 畫員 應圓·高閑·釋湖·法海·戒雄·釋森·懷澗·天翼·離幻·天然·性悅·三忍·信懷·法端, 司果 洪有智·印均, 小兒 李愛生, 供養主 大悟·敬修·懷信·壽命·勝默”

10) 建物部片史雜錄(松廣寺史庫 p.265); 松廣寺誌 p.43

“肅宗44年戊戌(康熙 57, 1718)春 天王門重修改彩. 化主 了眼, 都監 希悟”

11) 四天王與丹墮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630); 四天王創造及重修記(松廣寺史料 p.65);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肅宗46年庚子(康熙59, 1720)4月 四天王像重修改彩. 證明 以濟, 持殿 致淨, 化主 了眼, 供養主 漢陟·獲軒, 畫員 一機·幸坦·混平·碩俊·善覺·善日·夏天·得察·斗珍”

12) 四天王與丹墮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630); 四天王創造及重修記2次(松廣寺史料 p.66-67);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純祖6年丙寅(嘉慶11, 1806)4월 四天王像重修改彩. 證明 瑞弘, 持殿 良彥, 化主 華峰宇成, 別座 麗宗, 監 妙察·妙謹”

13) 建物部片史雜錄(松廣寺史庫 p.271); 松廣寺誌 p.44

“高宗1年甲子(同治3, 1864)天王門改瓦重修. 化主 龍雲處益, 都監 性敏, 瓦監 宜映, 別座 得定”

14) 四天王與丹墮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630-633); 四天王創造及重修記3次(松廣寺史料 p.68-71);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高宗28年辛卯(光緒17, 1891)7월27일. 四天王 重修 改彩·天王門 改彩. 化主 道淑·品罕·其鉉, 都監 性敏·翊洪, 鍾頭 圓敏·正覺, 別座 漢昨, 住持 宇正, 維那 裁信”

1925년에는 천왕문의 翻瓦가 있었고,<sup>15)</sup> 이듬해에는 龍巖振秀와 榮雲俊察에 의해 사천왕의 중수개채가 있었다. 이때의 도화사는 경성 開運寺의 普應性一이 맡았다.<sup>16)</sup>

1940년에는 북방천왕의 頂部가 절단되고 頭部가 낙하되어 이듬해인 1941년에 大愚錦秋를 중심으로 사천왕상이 중수개채되었다. 1975년에는 천왕문의 보수, 번와, 단청이 이루어졌고, 1976년에 吳善德華에 의해 사천왕상이 중수개채되었다.<sup>17)</sup> 2003년에는 남방천왕의 左臂가 절단 낙하되어 천왕문의 사천왕상을 중수하는 중이다.

### 3.2 四天王像의 腹藏 調査

사천왕상의 복장 조사는 2004년 1월 7일에 고경 스님과 송일기 교수에 의해 개봉되었고, 세부조사는 2004년 1월 1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고경스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남방천왕에서는 封緘木 1, 篋笈 2, 成唯識論義燈鈔 卷第2, 印本陀羅尼(朱), 墨書 1매, 喉靈桶, 기타 잔재물이 있었고, 東方天王에서는 法華文句記 卷第7·8, 圓覺經大疏釋義抄 卷第13,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第1·2, 法華文句記 卷5·6, 妙法蓮華經續述 卷第5·6, 成唯識論義燈抄 卷第3·4, 金剛錍顯性錄 卷第3·4, 印本陀羅尼(朱) 3종,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第5·6, 成唯識論述記 卷第 上半·下半, 喉靈桶, 大威德經陀羅尼 卷第4, 封緘木 1, 篋笈 2, 未詳1점, 잔재물이 있었다. 북방천왕에서는 [科註] 妙法蓮華經 卷第7, 印本 陀羅尼(朱), 封緘木 1, 篋笈 2, 喉靈桶, 잔재물이 있었고, 西方天王에서는 喉靈桶, 封緘木 1, 篋笈 2, 잔재물, 成唯識論義景鈔 卷第19, 妙法蓮華經玄義 卷第3·4가 나왔다. 이들 내용을 <표 1>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5) 建物部片史雜錄(松廣寺史庫 p.278); 松廣寺誌 p.32-33.

“1925 天王門翻瓦. 董役 海隱, 瓦手 朴致淑, 別座 布癡·雲松·孟洙”

16) 四天王第五重修記(松廣寺史庫, p.635-638); 四天王創造及重修記4次(松廣寺史料 p.71-73);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 에는 東方)

“1926. 8.17-9.7. 四天王 重修 改彩. 都監 (成)犀海基賢, 別座 (金)衛松泰日, 化主 (崔)龍巖振秀·(金)榮雲俊察 畫員 都畫士 (金)普應性一(京城府 東門外 開運寺)”

17) 北方持國天王琴板記.

〈표 1〉 사천왕상의 복장물

복 장	천 왕	북방천왕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계
	전 적		1종1책	9종 10책	1종1책	2종2책
인본다라니	가형	78	66	99	0	243
	나형	26	96(25)	0	18(18)	140(43)
	계	104	162(25)	99	18(18)	383(43)
후령통		1	1	1	1	4
목 서				1		1
봉합목		1	1	1	1	4
꿰 쇠		2	2	2	2	8
잔 재		1	1	1	1	4

4. 四天王像 腹藏典籍의 書誌的 特徵 및 性格

사천왕상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북방다문천왕에서 1종1책, 서방광목천왕에서 2종2책, 남방증장천왕에서 1종1책, 동방지국천왕에서 9종10책으로 도합 12종14책이 발굴되었다. 이들 전적의 서지적인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2>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의 복장전적

天 王	書名 및 撰述者	板本	刊行記	備考
北方 (1종1책)	[科註] 妙法蓮華經 卷7/	刊經都監藏刻本 (底本 寺刹本)	충숙왕4(1317)년 刻	발굴조사번호 Ⅲ-1
東方 (9종0책)	金剛鐔顯性錄 卷3·4 / 智圓 集(976-1022)	刊經都監板書刻本	刊經都監分司, 世祖7(1461)년	발굴조사번호 Ⅱ-7 ※ 교장 목록 에 없음
	大威德經陀羅尼 卷4 / 閻那崛多 譯	제조대장경의 후쇄(?)	高麗高宗23-38 (1236-1241)년	발굴조사번호 Ⅱ-17 再雕大藏經

東方 (9종) 책	妙法蓮華經續述 卷5·6 / 慧淨 述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興王寺 教藏都監, 高麗獻宗元年 (1095) 刻; 刊經都監, 世祖年 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I-5 ※ 卷1·2(價 物第206號): 松廣寺소장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 / 註明 集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遼本을 지본으 로한 教藏都監本) : 宋本無序 遼本有之 寫而彫出 以補其闕	刊經都監, 世祖年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I-3
	法華文句記 卷5·6 / 湛然 述(711-782)	刊經都監讎刻後印補 刻混入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分司, 世祖年間 讎刻, 壬亂以前後印	발굴조사번호 II-4
	法華文句記 卷7·8 / 湛然 述(711-782)	刊經都監讎刻後印補 刻混入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分司, 世祖年間 讎刻; 壬亂以前後印	발굴조사번호 II-1
	成唯識論述記 卷6 / 窺基 撰(632-682)	[金山寺廣教院 刻];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寺刹本)	[金堤: 金山寺 廣教 院]; 刊經都監分司, 世祖年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I-14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 惠沼 撰(唐)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I-6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興王寺 教藏都監, 宣宗10 (1093)刻; 刊 經都監, 世祖8(1462) 讎刻	발굴조사번호 II-2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 / 遇榮 集	金山寺廣教院 刻;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寺刹本)	金堤: 金山寺 廣教院 宣 宗9(1092)書刻 : 刊經都監, 世祖年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I-13
南方 (1종) 책	成唯識論義景鈔 卷12 / 澹癡 集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2
西方 (2종) 책	妙法蓮華經玄義 卷3·4 / 智者 說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V-5
	成唯識論義景鈔 卷19 / 澹癡 集	刊經都監讎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讎刻	발굴조사번호 IV-4

위의 <표 2>의 내용을 분석하면,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에 나온 복장은 정장인

大威德經陀羅尼 卷4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이들 교장 11종 중 科註妙法蓮華經 卷7은 고려의 전대본이고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과 成唯識論述記 卷6은 모두 사찰본계통이다. 金剛鐔顯性錄 卷3·4는 간경도감에서 정서하여 번각한 판이고, 妙法蓮華經續述 卷5·6,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圓覺經大疏釋義抄 卷3, 妙法蓮華經玄義 卷3·4, 成唯識論義景鈔 卷12·19는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는 遼本을 저본으로 하여 교장도감에서 筆寫 補刻한 것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文句記 卷5·6·7·8은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였지만, 刊經都監에서 번각하고, 뒤에 다시 보각하여 후인한 판이 섞여 있다. 이들 각 경전의 서지적 특징과 성격을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4.1 四天王像 腹藏典籍의 書誌的 特徵

이들 각 경전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金剛鐔顯性錄(金剛鐔論顯性錄), 卷第3·4 1책(발굴조사번호 II-7)은 唐의 湛然이 찬술한 金剛鐔에 대해 송의 智圓(976-1022)이 주석한 것인데, 이는 錢謙益의 四明知禮의 山家派에 대해 山外派의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金剛鐔의 주석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발굴상태는 훼손과 부식이 심하다. 권3과 4가 각각 29장씩이며 각권의 29장 전면에 간행기록이 남아 있다. 권3의 29장 전면에는 ‘天順五年(세조7, 1461)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에 이어 ‘敦勇副尉前行中軍司勇臣申敬敷 書’, 권4의 29장 전면에는 간기와 서사자에 이어 ‘…教臣盧思愼 校勘’ ‘…□□寺住持大師 臣 海超 校勘’, ‘判教宗事興德寺住持都大師臣雪峻校勘’의 기록이 남아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4.4×(29.0+28.8)cm. 無界, 28行20字, 註雙行, 無魚尾, 크기 37.0×32.6cm이다. 처음 발굴되는 교장이며 간경도감에서 세조 7(1461)년에 申敬敷가 직접 판본을 쓰고, 盧思愼, 海超, 雪峻이 교감하여 校勘한 것이다. 이는 新編諸宗教藏總錄에 나타나지 않는 책이다. (그림 1-1~1-3 참조)

2) 大威德經陀羅尼, 卷4(발굴조사번호 II-17)는 隋北印度三藏 闍那崛多가 번역한 책이다. 2004년 2월 2일에 발굴된 것인데 열화상태가 극심하다. 판식은 上下單邊

22.6×?cm, ?行14字, 크기40.2×?cm이며, 板尾題는 大威德經 第四卷이라 되어 있다. 재 조대장경의 합차를 참조하여 K389 短函의 원간기를 보면, '庚子歲(高宗27, 1240)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 되어 있어 고종27년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는 조선 세조 연간에 후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후쇄인지 번각인지의 여부는 발굴 물이 고착되고 열려진 부분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3) 妙法蓮華經續述 卷5·6(발굴조사번호II-5)은 唐 京師 紀國寺 沙門 釋 慧淨이 찬술한 것이다. 板尾題는 法花續述이다. 卷5는 1-19, 21-45張이며 표지 뒷면 墨書에 '五 廿丈本无'라 되어 있어 2장의 결장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卷6은 1-39 장 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3.9×(28.5+28.5)cm 無界, 30行22字, 無魚尾 크기 34.1×31.2cm이다. 이 책의 권1·2는 寶物 第206호로 松廣寺가 소장하고 있다. 권1은 '壽昌元年乙亥歲(獻宗元年, 1095)高麗國興王寺奉宣雕造'의 간기 다음에 '秘書省楷書同正臣 南宮禮 書', 권제2의 다음에는 '寫經院書者臣柳侯樹書'라고 되어 있어 板下本の 필사자가 刻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법화경부의 '續述 十卷 慧淨 述'에 해당하는 번각본이다.

4)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발굴조사번호II-3)는 燕臺 憫忠寺의 沙門 詮明이 鳩摩羅什의 妙法蓮華經 7권본에 주석을 붙인 窺基의 法華經玄贊을 補述한 것이다. 판수제는 玄抄(前面 第1·2行, 第4·5字 사이)라고 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4.9×(19.1+18.9)cm, 無界, 22行 22字, 無魚尾, 크기 39.0×24.6cm이다. 이 책은 新抄의 서문을 劉晟이 썼는데, 그 제목의 바로 아래에 '宋本無序 遼本有之 寫而彫出以補其闕'이라 되어 있어 서문은 요본에 의거하여 필사보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권차의 권2를 중국에서 발굴된 요본과 비교하면, 판식, 행자수,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책은 서문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遼本을 저본으로 하여 教藏都監에서 筆寫하여 補刻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간경도감에서는 다시 요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보각한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 법화경부의 '會古通今抄 十卷 詮明 述'에 해당된다. 권1·2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것이고, 권2와 권6은 1974년 중국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 있는 木塔인 釋迦塔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복장에서 발굴된 47종의 전적중에 들어 있다.

이는 孫守節 등 47인이 새긴 것으로 요대의 간각본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8)</sup> (그림 2-1~2-2)

5) 法華文句記, 卷5·6·7·8(발굴조사번호II-4, II-1)은 隨의 智者대사 智顓(538-597)가 법화경을 因緣釋, 約教釋, 本迹釋, 觀心釋으로 나누어 강설한 法華文句를 陳대의 제6조인 당의 天台沙門인 湛然(711-782)이 주석을 붙인 것이다. 판수제는 妙樂(前面 第1行, 第8字右側)이라고 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4.5×(27.3+27.1)cm, 無界, 30行25字, 無魚尾, 크기 42.6×30.0cm이다. 이 판들은 판각기법이 떨어지고 보판의 판각기법으로 미루어 보건대, 간경도감의 분사에서 판각하여 보존해두었던 판이 없어지거나 마손이 심하여 보각후인한 것이며 후인판도 뒤에 이루어져 마멸이 심하다. 각권의 난외의 前面 右下에는 많은 각수질이 나타나고 있는데, 권5에는 宗攄(1, 2장), 若丁(5장), 良右(11, 12장), 戒宗(16장), 法琪(19, 20장), 金景(22장), 文李夜(25, 26장), 守英(27, 28장), 崔堯(29, 30장), 善心(31장), 松壽(33, 34장), 金英(36장), 法行(37, 38장), 梁智(39장), 권6에는 高悅(1장), 行元(3, 4장), 德成(7, 8장), 用玄(9, 10장), 守堅(17, 18장), 高仁立(19, 20장), 宗攄(21, 22장), 松永(3, 24장), 万玄(27, 28장), 石全(29, 30장), 高悅(31장), 良右(33, 34장), 梁智(35장), 권7에는 興眞(1, 2장), 行元(5, 6장), 金守英(8장), 李藏(11, 12장), 定心(13, 14장), 方悅(15, 16장), 松壽(17, 18장), 法行(19, 20장), 用玄(21, 22장), 丁云(23, 24장), □□(25장), 正然(26장), 高仁立(29, 30장), 梁智(31, 32장), 玄世(33, 34장), 興眞(35, 36장), 康柱(39장), 권8에는 法琪(1, 2장), 宗攄(3, 4장), 眞悟(9, 10장), 法藏(11, 12), 金日尔(13장), 法琪(16장), 宗攄(20장), 長成(21장), 梁世(23, 24장), 永堅(25, 26장), 高英輔(27장), 万元(31, 32장), 長成(33장), 李洪(34장), 正然(35, 36장), 玄□(37, 38장)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 법화경부의 '文句記 十卷 湛然 述'에 해당된다. (그림 3-1 ~3-3)

6) 成唯識論述記, 卷6(발굴조사번호II-14)은 당 慈恩寺의 翻經沙門인 窺基의 撰述이다. 권6의 상반(3-4, 6-50장)과 하반(1-55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板首題는 述記(前面 第1·2行, 第4·5字)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2.6×(18.5+18.6)cm, 無界,

18)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編, 應縣木塔遼代秘藏. 출판사: 文物出版社, 1991.

22行21-22字(간혹 23字), 無魚尾, 크기 38.7×24.4cm이다. 이 판본은 이번에 발굴된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발굴조사번호II-13)과 판식이 같고, 간행에 대한 기록이 金溝金山寺慧德王師眞應碑塔文에 나타나고 있어 금산사 광교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경도감이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3 成唯識論부의 '述記 二十卷 或 十卷 窺基 述'에 해당된다.(그림 4-1~4-2)

7)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발굴조사번호II-6)는 淄州 大雲寺 沙門인 惠沼 撰述이다. 판미제는 燈(後面左側 第2·3字)으로 간략하게 나타난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6.0×(23.2+23.2)cm, 無界, 28行 23字, 無魚尾, 크기 41.0×29.4cm이다. 이 판본은 교장도감본을 간경도감이 번각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B 成唯識論부의 '了義燈七卷 惠沼 述'에 해당된다

8)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발굴조사번호II-2)은 終南山 草堂寺의 沙門인 宗密의 撰述이다. 板尾題는 圓覺密抄(後面左側 第6·7字)이다. 판식은 上下單邊 全廓 22.7×(25.0+27.0)cm, 無界, 30行 20字, 註雙行, 無魚尾, 크기 34.5×31.0cm이다. 권13의 난외 前面右下에는 각수질이 나타나고 있는데, □□□(35장), 行中(36장), □□(38장), 緣善(41장)이다. 49張 後面에는 '大安九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및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라는 간기가 각입되어 있어 고려 宣宗 10(1093)년에 교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을 조선 세조8(1482)에 번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 圓覺經부의 '大鈔 二十六卷 或 十三卷 宗密述'에 해당한다.(그림 5-1~5-2)

9)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발굴조사번호II-13)은 譯經證義講經律論廣演大師인 遇榮 集이다. 板首題는 仁王抄(前面 第1·2行, 第5·6字)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1.9×(18.6+18.5)cm, 無界, 22行21-22字(간혹 23字), 註雙行, 無魚尾, 크기 38.9×23.9cm이다. 이 판본은 대흥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고 金山寺 廣教院에서 韶顯대사가 북송의 汴京本에 의거하여 宣宗 8(1091)년 8월에 착수하여 9(1092)년 6월에 필역하여 그해 8월에 간행한 것에 해당한다.<sup>19)</sup> 이를 조선 세조연간

19) 遇榮 集,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6 47전면 刊記

“海東金山寺廣教院重彫汴京印本榮公所撰法衡鈔六卷一部起自辛未(宣宗8,1091)閏八月六日至於壬

에 간경도감에서 다시 번각한 판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 仁王經부 ‘法衡抄 六卷科二卷 遇榮 述’에 해당한다.(그림 6-1 ~6-2)

10) 科註妙法蓮華經, 卷7(발굴조사번호III-1)은 송 守倫이 저술하고 명의 法濟가 참정한 10권본과 元 徐行善의 8권본, 명의 一如가 집주한 7권본의 세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내용과는 과주부분이 달라서 다른 계통의 과주본이거나 無畏正午스님이 독자적으로 과주를 단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내용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크기 31.0×(35.5이상)cm이다. 권의 27 장 후면에 간기가 각입되어 있는데, ‘延祐四年(충숙왕4, 1317)丁巳□ 雙弘定慧光顯圓宗無畏國統 丁午<sup>20)</sup>’라고 되어 있고, 판의 상태가 깨끗하여 고려 충숙왕 4년에 간행한 사찰본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고려의 사찰본으로 전래된 것을 송광사가 입수하였다가 사천왕상의 복장불사시에 집어넣은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7)

11) 妙法蓮華經玄義, 卷第3·4(발굴조사번호 IV-5)는 天台宗의 三大部<sup>21)</sup>중의 하나로 智者大師가 묘법연화경을 釋名, 變體, 明宗, 論用, 判教의 五綱目으로 나누어 그 진리를 강설한 불교개론이다. 판수제는 妙玄(前面右側)이다. 판식은 上下單邊, 全廓 23.6×(27.9+27.8)cm. 無界, 30行 20字, 註雙行, 無魚尾, 크기 40.0×31.2m 이다.

권3·4의 난외 前面右側는 각수가 새겨져 있는데, 권3에는崔堯(1, 2장), 正然(5, 6장), 戒宗(7, 8장), 長成(15, 16장), 高悅(19, 20장), 康柱(25, 26장), 金鉉(29, 30장), 권

申(宣宗9,1092)六月十日手畢流通願意者窮尋贊疏之妙文大悟釋經之疏旨能護之法已具所護之邦必與時大安紀曆八年首秋月二十四日於保慶院記 工德主靈鷲山大慈恩玄化寺住持普利了眞精進融慧廣祐僧統 韶顯 題”

20) 京畿道 始興郡清溪寺事蹟碑; 始興 趙仁規祠堂記. 無畏丁午는 高麗 忠烈王代의 스님이다. 賜號는 無畏이고 號는 牧庵이다. 圓慧國師의 제자로 승과에 급제하였다. 月出山 白雲庵에 있을 때 忠烈王의 부름을 받아 同王 28(1302)년 妙蓮寺 第3世 住持가 되었고, 동왕 32(1306)년에 法號를 白月朗空寂照無碍大禪師라 하였다. 다음해 王師를 봉하고 다시 법호를 佛日普照靜慧妙圓眞鑑大禪師라고 하였다. 忠宣王 卽位年(1308)에 禪教各宗山門道伴摠攝提調라는 호를 가하고 다음해인 1309 國淸寺에 이주케 하였다. 이에 도감을 두어서 사원을 修造하고 金堂을 창건하여 閱漬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짓게 하였다. 다시 莖原寺로 이주케 하여 金堂을 개창하였다. 忠肅王 元年(1314) 왕의 명으로 國統으로 冊하고, 法호를 大天台宗師雙弘定慧光顯圓宗無畏國統이라고 하였다

21) 천태종은 법화경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한 것으로, 종파로서 성립된 것은 智者大師의 강설에 의해 그의 제자 章安大師 灌頂이 그의 필기록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에 의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三大部인데, 이는 法華玄義10권, 法華文句 10권, 摩訶止觀10권이다.

4에는 高戒林(2장), 可全(3, 4장), 志大(7, 8장), 仁弋(9, 10장), 六但(11, 12장), 尹宣補(13, 14장), 高悅(17, 18장), 法均(19, 20장), 僧初手守心(21, 22장), 李藏(23, 24장), 正然(25, 26장), 松永(27, 28장), 康柱(29, 30장), 高仁立(33, 34장) 이 나타나고 있다. 표지내부에는 ‘更校崇’이라는 墨書가 들어 있다. 또한 권수의 제목 및 찬술자 아래 ‘邈’자가 새겨지고 있다. 이는 함차인 듯 한데 고려대장경에서 막의 함차는 조선 고종 2(1865)년에 海冥壯雄이 보유한 拈頌의 세 함차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新編諸宗教藏總錄중에는 ‘脫或將來 編次函帙 與三藏正文 垂之無窮 則吾願畢矣’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함차를 메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경도감에서 새긴 교장도감판의 변각이라 할 수 있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 법화경부의 ‘玄義十卷 智者說’에 해당된다.(그림 8)

12) 成唯識論義景鈔, 卷12·19(발굴조사번호 I-2, IV-4)는 澹凝가 集한 것이다. 판수제는 義景十二 (前面 第1·2行사이)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3.9×35.8m. 無界, 20行20字, 註雙行, 無魚尾, 크기 37.6×46.1cm이다. 이 판본 역시 교장도감의 간행본을 조선 간경도감에서 번각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3 成唯識論 부의 ‘義景鈔 二十卷 或 十四卷 澹凝 集’에 해당된다.

#### 4.2 四天王像 腹藏典籍의 性格

이번에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12종 14책의 자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서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이들의 자료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조가 주도한 불경간행사업과 간경도감에서 이루어진 장소간행의 전체적인 맥락가운데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조는 3(1457)년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불경을 사성하고, 거질의 불경을 경판에서 찍어내는 동시에 법화경등의 불경을 활자로 간행하였다. 이듬해인 4(1458)년에는 信眉, 守眉, 學悅 등을 시켜서 해인사대장경 50 부를 인출하여 각 도의 명산대찰에 분장하였다. 이어 5(1459)년에는 월인석보를 인출해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서를 간행하기 위한 간경도감을 설치하였다. 간경도

감은 고려때 한역정장과 장소를 간행한 大藏都監과 敎藏都監의 취지와 규모를 본받은 바가 많으며, 특히 의천이 수집하여 간행한 장소를 수집하여 판각한 사적을 본받은 바가 많다. 중앙의 간경도감을 본사로 하고 지방의 여러곳에 분사를 두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개성부, 안동부, 상주목, 진주목, 진주부, 남원부 등이 있다. 세조 7(1461)년 6월에 왕명으로 설치하여 성종 2(1471)년까지 존속하였다. 간경도감의 주된 사업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세조7(1461)년부터 14(1468)년까지는 주로 한문본 불경의 간행 및 반포에 치중하였고, 다른 하나는 세조 8(1461)년부터 14(1468)년까지는 국역본의 불경 및 간행과 반포에 힘썼다. 간경도감에서는 그 주된 사업의 하나인 한문본 불경의 간행 및 반포를 위해 고려 의천이 주도하여 간행한 교장이 별로 전해지지 않아 교장의 판각에 치중하였다. 이들 판각은 대부분 번각이거나 새로 판각용정서본을 마련하여 간행하였다.

송광사 천왕문의 사천왕상에 발굴된 12종14책의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그 1종인 大威德經陀羅尼 卷(발굴조사번호 II-17)은 재조대장경인데 자료의 열화상태가 심하고, 펴 수가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재조대장경과의 비교는 후일로 미루어둔다.

11종의 교장을 대상으로 그 성격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科註妙法蓮華經 卷7(발굴조사번호 III-1)은 고려 충숙왕 4(1317)년에 간행된 사찰본인데, 어느 사찰에서 인출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둘째, 간경도감이 새로 판각용정서본을 만들어서 판각하거나, 일부를 보판하여 후인한 것이 있다.

우선 판각용정서본을 만들어 판각한 것은 金剛鉉顯性錄(金剛鉉論顯性錄)(발굴조사번호 II-7) 卷第3·4의 1책이다. 申敬敷가 세조7(1461)에 직접 판본을 쓰고, 盧思慎, 海超, 雪峻이 校勘한 것이다. 이는 新編諸宗教藏總錄에 나타나지 않으며, 사본으로 전래된 것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설준은 당시 흥덕사의 주지로서 교감에 참여하였고, 노사신<sup>22)</sup>과 해초스님은 세조10(1464)년에 간행된 金剛般若波羅蜜經

22)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자반이고 호는 보진재·天隱堂이다. 본관은 交河이다. 1451(문종1)년에 생원이 되고, 1453(단종1)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集賢殿博士가 되었다가 집

諺解 에도 관여하여 세조의 불경사업을 도왔다.

또한 法華文句記 卷5·6·7·8(발굴조사번호II-4, II-1)은 刊經都監 翻刻後印補刻混入本 인데, 교장도감본을 번각하면서 간경도감의 분사(?)에서 독자적으로 정서하여 보판하거나 후대에 다시 인쇄한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화문구기의 제목, 권5의 17장이나 권7의 3장은 당시에 필사하여 보각한 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군데 군데 나타나는 후인판은 마멸이 심하여 빨라도 16세기경에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각권에는 많은 각수질이 나타나고 있어 이 판의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나타내준다. 송광사의 천왕문이 광해군 1(1609)년에 智罔을 화주로 하여 대목 學正에 의해 천왕문이 중수되었고, 인조 6(1628)년 法欽을 화주로 하여 四天王像이 重造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천왕상의 복장불사는 늦어도 이 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고려조의 사찰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판본이 두 종 있는데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발굴조사번호II-13)과 成唯識論述記 卷6(발굴조사번호II-14)이다.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은 대흥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고 金山寺 廣敎院에서 韶顯(韶顯은 慧德왕사의 諱)대사가 북송의 汴京本에 의거하여 宣宗 8(1091)년 8월에 착수하여 9(1092)년 6월에 필역하여 그해 8월에 간행한 것이다. 소현대사는 일찍이 의천의 홍원을 돕기 위해<sup>23)</sup> 금산사에 廣敎院을 짓고 순종 원년(太康9, 1083)부터 肅宗2(壽昌 3, 1097)년까지 慈恩 소찬의 法華玄贊, 唯識述記 등의 장소 32부 353권을 考正開板하여 유통시켰고<sup>24)</sup>, 이는 의천이 편찬한 신편제중

현전부수찬·성균관직장·예문관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세조의 총애로 1462년(세조 8)에는 1년 동안에 5품계를 뛰어넘어 승정원의 同副承旨가 되었다. 이후 우부승지, 도승지, 호조판서가 되었고, 간경도감의 도제조를 겸하여 불서의 간행에 관여하는 한편 經國大典을 비롯한 많은 책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에는 南怡·康純 등의 역모를 다스린 공로로 申叔舟·韓明澮 등과 함께 翊戴功臣의 칭호를 받고 宣城君에 봉하여졌다. 右贊成, 領敎寧府事, 宣城府院君, 좌의정,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文匡

23) 慈恩 撰, 阿彌陀經通贊疏, 卷下. 刊記: 金山寺 廣敎院, 大安 4(宣宗 5, 1088).

“... 此 求得將到流通之本也. 予助洪願 付於廣敎院 命工重刻...”

24) 金溝金山寺慧德王師眞應碑塔文.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3. 서울 伽山佛教文化研

교장총록에도 포함되었다.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는 이 문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물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예가 된다. 成唯識論述記 卷6은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와 판식이 같고, 앞서 언급한 金溝金山寺慧德王師眞應碑塔文에 자은 소찬의 唯識述記에 대한 간행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금산사 광교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경도감이 변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3 成唯識論부의 ‘述記 二十卷 或 十卷 窺基 述’에 해당된다.

넷째, 교장도감본을 변각한 것으로는 妙法蓮華經續述 卷5·6(발굴조사번호 II-5), 妙法蓮華經玄義 卷第三·四(발굴조사번호IV-5),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발굴조사번호II-3),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발굴조사번호II-2),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발굴조사번호II-6), 成唯識論義景鈔 卷12·19(발굴조사번호 I-2, IV-4)의 7종이다.

이들 자료중 교장도감본의 성격을 제시해주는 두개의 자료가 있다. 송·요·일본에서 필사본을 수입하여 고려에서 교감하고 새로 판각용정서본 즉 판서본을 써서 교감·판각한 妙法蓮華經續述 卷5·6과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이 있다. 그중 묘법연화경찬술권5·6은 필사자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 남아 있는 권1은 南宮禮가 쓰고, 권2는 柳侯樹가 판서본을 써서 獻宗 元(1095)年에 간행한 점으로 미루어 교장도감의 독자적인 판각본임을 알 수 있다.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는 요본을 저본으로 필사보각한 것이다. 당시 송본과 요본이 다 전래되었는데 宋本에 劉晟이 찬한 新抄의 서문이 없어서 요본을 저본으로 하여 교장도감에서 筆寫하여 補刻한 것이다. 이 판본은 저본을 요본에 의거하여 판각한 계통의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 5. 敎藏 傳來本과 四天王像 發掘 敎藏의 比較

究院, 1996. p. 20-69. “...師曾於金山寺 選勝于寺之南 武六十許步也 倉成一院 額号廣敎 仍筆刻雕經板 置于院 ... 其堂自太康九年 至師之末年 搜訪慈恩所撰 法華玄贊 唯識述記等章疏 三十二部 共計三百五十三卷 考正其本 募工開版 私其紙墨 印流造通 以廣法施也...”

교장의 전래본은 30여종 정도 된다. 이번에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에서 11종의 교장이 추가 발굴됨으로써 기존에 발굴된 교장을 보완하게 되었다. 기존에 발굴된 교장 전래본과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교장을 대상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초간본 및 번각 후쇄본, 교장의 판본별 성격으로 나누어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 5.1 교장의 초간본 및 번각 후쇄본

현존하는 교장의 초간본으로는 일본 東大寺가 소장하고 있는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20권 완질 40축, 大東急文庫 소장의 貞元新譯華嚴經疏, 권제10 영본 1축, 강태영(趙明基舊藏: 보물 890호) 소장의 注仁王護國般若經, 권제1-4 잔본 1책, 大方廣佛華嚴經疏, 권제10 영본 1축(소장자 미상)이 있다.

현존하는 교장의 번각 또는 후쇄본으로 알려진 것은 국내에서는 閔泳珪 소장의 淨名經集解關中疏, 권제3·4(보물736호), 송광사 소장의 大乘阿毘達摩雜集論疏, 권 13·14(보물205호), 妙法蓮華經續述, 권5·6(보물206호), 金剛般若經疏開玄鈔, 권4·5·6(보물207호), 大般涅槃經疏, 권9·10(보물90호),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권1(보물204호), 김병구 소장의 金剛般若經義記, 권上·下, 般若波羅密多心經疏, 권上·下, 圓覺禮懺略本, 권3·4가 있다. 일본 眞福寺에 소장된 釋摩訶衍通玄鈔 권1-4가 있다

또한 이번에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것중에는 金剛鐔顯性錄, 卷第3·4, 妙法蓮華經玄義 卷第3·4, 妙法蓮華經續述, 卷5·6,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 1·2, 法華文句記, 卷5·6·7·8, 成唯識論述記, 卷6, 成唯識論義景鈔, 卷 12·19,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 5·6이 들어 있다.

## 5.2 교장본의 판본별 성격

위에서 언급한 교장의 초간본 및 번각 후쇄본을 종합하여 그 판본별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판본에서 나타나는 성격은 교장도감본과 간경도감본의 입장에서 다르게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교장도감본과 간경도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5.2.1 교장도감본의 판본별 성격

敎藏都監은 홍왕사에 설치되었으며, 의천이 송, 요, 일본 및 국내에서 수집한 4,000권의 장소를 교감하고 선종 9(1092)년에 처음으로 출간하기 시작하여 숙종 7(1102)년에 종역되었다. 현존하는 교장도감본을 보면, 우선 송·요·일본에서 수집한 것을 그대로 번각 수용한 것, 필사본을 수입한 것은 고려에서 교감하여 새로 판각용정서본 즉 판서본을 써서 교감하여 판각한 것, 혜덕왕사를 중심으로 김제 금산사 광교원에서 간행한 것, 송에서 경판을 간행해서 직접 가져 온 것의 네 종류가 있다.

첫째, 의천이 송, 요, 일본 등에서 수집한 교장중 간본은 대체로 일부 수용하여 그대로 번각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20권 40축의 완질 권자본이다. 전질중 권제4의 下부터 권제20의 下에는 선종11년-숙종1(1094-1096)년 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의 간기가 새겨지고 있다. 따라서 권제1상부터 권제4까지의 7축은 본서가 권차대로 판각되었 것으로 생각할 때 선종11(1094)년 이전에 개판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sup>25)</sup> 또한 이는 요본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여 번각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sup>26)</sup> 貞元新譯華嚴經疏,

25) 千惠鳳,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279-413.

26) 朴相國, 義天의 敎藏-敎藏總錄의 編纂과 敎藏刊行에 관한 再考察, 普照思想, 제11집, 普照思想研究院, 1998. p. 77-99에 의하면, 1974년 중국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 木製釋迦塔 봉안의 불상 복장에서 같은 서명의 遼刊本 권제1의 上, 1의 下, 5의 上, 5의 上의 낙질본이 나왔는데, 권 5당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3권은 행자수 30행 20자의 체제와 본문의 글자체가 고려본과 같은 것으로 밝혀

권제10 영본 1축은 獻宗元(1095)년에 요본을 번각 수용하여 간행한 초간본으로 그 새김이 정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물 890호로 지정된 注仁王護國般若經, 권제1-4 간본 1책은 인왕만야경을 송의 淨源이 해석한 것이다. 판식은 大字 20행15자, 小字 注雙行 20字의 송본을 번각 수용하였는데 송본에 글자의 마멸이 생겼거나 결락으로 본문을 잃은 것은 필사 보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필사본을 수입한 것은 고려에서 새로 판각용정서본 즉 판서본을 써서 교감하여 판각하였다. 서사자와 교감자가 나타나는 예를 보면, 金剛般若經略疏, 卷1(魯榮書, 則瑜·德誥校勘), 圓覺禮懺略本, 권3(金俊爽書, 聰敏·顯雄·性英校勘), 金剛般若經疏開玄鈔, 권6(李彪書, 尙源·融觀·滋顯校勘), 金剛般若經義記, 권上·下(吳代公書, 覺之·滋顯·德延校勘), 地指論義記, 권下(蔣髦書, 玄湛·會凡·覺樞) 등을 볼 때 고려의 달필가인 魯榮, 金俊爽, 李彪, 蔣髦 등이 판서본을 정서하고, 則瑜·德誥, 聰敏·顯雄·性英, 尙源·融觀·滋顯, 覺之·滋顯·德延, 玄湛·會凡·覺樞 등이 교감하여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는 요의 필사본에 의해 판서본을 쓰고 교감한 다음 판각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妙法蓮華經續述, 卷5·6은 기존에 발굴된 권1·2를 참조하면 역시 필사자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의천이 주도한 흥왕사의 교장도감이 아니고, 사찰에서 필사하여 필역한 것으로는 이번에 송광사에서 발굴된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1·2와 成唯識論述記 권6이 있다.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는 대흥왕사가 아니고 금산사의 광교원에서 소현대사가 북경 汴京本에 의거하여 선종 8(1091)년 8월에 착수하여 9(1092)년 6월에 필역한 것에 해당한다.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유식론술기 역시 광교원본에 해당한다.

넷째, 의천이 송나라의 惠因院에서 淨源법사로부터 화엄대의를 수강할 때 이용

다. 다만 板題가 요본은 오른쪽에서 새겼는데, 고려본은 왼쪽에 새겨지고 있다. 요본은 요나라 太祖, 太宗, 穆宗, 景宗, 興宗의 휘인 億光, 明賢, 眞자에 대해 避諱缺劃되어 있고, 판각은 요의 道宗(1055-1100) 집권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본은 요나라 황제의 휘를 모두 정자로 고쳐 새기고, 권제1하 제14장 11행에 '如賢首品'의 '賢'字권과 제5상 제14장 11행의 '百億閻浮提'의 '億'字만 각수의 실수로 결획을 그대로 새겼을 뿐이어서 거란의 번각으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한 澄觀 述, 大方廣佛華嚴經疏 120 권의 거절을 증여받고 바로 당시의 일류각수에 게 3천냥을 주고 주문하여 판각한 주화엄경판으로 27) 중국에서 직접 판각해온 것이다. 28) 이 대방광불화엄경소는 홍왕사에서 다시 새기지 않고 그 경판을 잘 보존하면서 찍어 널리 보급하였다. 그중 불복에서 나온 고려인본만도 여러 권에 이르며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29) 이 중 권41에 들어있는 都變相圖는 공민왕 21(1372)년 9월 靈通寺에서 李美沖, 朴成亮, 金師行 등의 시주로 공인을 모집하여 새긴 것이다. 이 경판은 조선초기까지 간직되어 오다가 세종 6(1424)년 京都의 室町幕府에 사급되어 相國寺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30)

이와 같이 이들 교장의 판각은 당시 판각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여 번각본인 경우는 바탕이 된 원본을 방불하게 하고, 국내에서 판서본을 새로 써서 여러 고승의 교감을 거쳐 새긴 판본을 보면, 판각술이 또한 정교하여 자체가 우아 단정하여 당시 고도로 발달된 인쇄문화수준을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

## 5.2.2 간경도감본의 판본별 성격

간경도감이 주도한 교장의 판본별 성격도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의천의 교장 조조 이전부터 금산사 광교원에서 개판해온 것을 번각한 중수본이 있는데, 이번엔 송광사에서 발굴된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 2와 成唯識論述記 권6가 있다

27) 蘇東坡奏議 15, 권6 論高麗進狀 및 권8 乞禁商旅過外國狀 참조

28) 高慮史 권10, 世家 권제10, 宣宗 丁卯4년 3월 甲戌조에 의하면, 이 경판의 판각은 정확하게 그가 해인원에서 수장하고 있던 1085년에 주문하여 귀국한 다음해인 1087년 3월에 송나라 상인 서진 등으로부터 납품받았으니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경판수는 2,900여판이다.

29) 澄觀 述, 大方廣佛華嚴經疏. 淨源 錄疏注經 宋刻高麗印本 宋 元豐8-延祚2(1085-1087) 刻 高麗 14세기 인출: 21·24권2첩(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보물1128호), 28-30권 1책(강태영 소장, 보물892호), 30권1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1124호), 41권 1첩(이경희 소장, 보물 964호), 42권 1첩(강태영 소장, 보물891호), 68권1첩(구인사, 보물1013호), 84권 1첩(호림박물관 소장, 보물 1106호), 97권 1첩(기림사 소장, 보물959호), 100권1첩(호림박물관 소장, 보물1106호), 100-102권(강태영 소장, 보물 892호), 117권1첩(호림박물관 소장, 보물 1106호.)

둘째, 의천이 흥왕사에서 개관한 판본을 중수한 것이 있는데, 요 송의 간본을 일부 수정하여 번각의 수단으로 조조한 것과 송의 사본을 판서하여 새로 조조한 것을 번각 수용한 중수본을 들 수 있다. 그중 요·송의 간본에 의한 것은 예를 들면 이번 에 송광사에서 발굴된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의 경우와 같이, ‘大安九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및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라는 간기가 각입되어 있어 고려 宣宗 10(1093)년에 교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을 조선 세조8(1482)년에 번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송의 사본에 의한 것은 기존의 발굴본중 金剛般若經疏開玄鈔 권4·5·6의 경우는 壽昌四年戊寅歲(숙종3, 1098) 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의 원간기에 이어 將士郎常衣直長同正臣王鼎書(권4), 將士郎常舍直長同正臣李衍書(권5) 將士郎四宰主簿同正臣李彭書(권6) 등의 판서자와 권말에는 通奧大師賜紫沙門臣尙源校勘, 慈應大師賜紫沙門臣融觀校勘, 慧炤大師賜紫沙門臣德延校勘의 교감자 표시가 있고, 그에 이어 天順五年辛巳歲(세조7, 1461) 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的 重刊記가 있다. 이들 표시로 인해 같은 중수본이라 하더라도 고려 교장도감이 번각 수용한 것과 독자적으로 판서하여 조조한 원판본의 성격과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셋째, 고려각본을 중수한 것이 있는데, 이는 禪門三家拈頌集의 경우와 같이, 丙午七月日의 원발문에 이어 天順8年甲申歲(세조10, 1464)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的 중간기가 들어 있다.

넷째, 간경도감이 독자적으로 판서하여 奉教雕造한 것으로는 眞實珠集의 경우와 같이 ‘天順六年壬午歲(세조8, 1462) 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黃伍信書 尹弼商·盧思慎·韓繼禧等校勘’의 原刊記만 표시되어 있다. 이번 에 송광사에서 발굴된 金剛鉅顯性錄(金剛鉅論顯性錄), 卷第3·4 1 책도, ‘天順五年辛巳歲(세조7, 1461) 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申敬敷書, 盧思慎·海超·雪峻校勘’의 원간기만 표시되어 있다. 이들 두 장소는 간경도감이 독자적으로 필사 판각하여 인출한 것에 해당한다. 이들 장소중 에는 간경도감의 본사외에 분사에서 간행된 것들이 있는데, 開城府의 圓宗文類集解,<sup>31)</sup> 安東府의 瑜伽論疏, 권35-36,<sup>32)</sup> 尙州牧의 林間錄<sup>33)</sup>, 全州府의 大乘起信論筆削記 권3-4와 大方廣佛華嚴經合論 권11-12 및 41-42<sup>34)</sup>, 南原府의 菩提達磨四行論<sup>35)</sup> 이

있다. 같은 책이면서 간경도감의 두군데의 분사에서 나누어 새긴 것도 있는데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권14<sup>36)</sup>와 俱舍論頌疏鈔권1-8<sup>37)</sup>이 있다. 간경도감과 분사도감의 판각술은 본사가 깨끗한데 비하여 지방은 조잡하다. 이번에 송광사에서 발굴된 法華文句記, 卷5·6·7·8은 분사도감의 표시는 없지만, 판각의 상태가 조잡하여 분사도감의 어느곳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 6.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송광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로서 신라승 혜린에 의해 개산되었고,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사를 결성하여 송광사의 중창이 이루어진 이후 오늘날까지 승보사찰로서의 사세가 이어지면서 발전되어 왔다.

2) 천왕문 사천왕상의 조성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선조조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이후 광해군 1(1609)년에 智罔을 화주로 하여 대목 學正에 의해 천왕문이 중수되었고, 인조 6(1628)년 法欽을 화주로 하여 四天王像이 重造된 후 여러 차례 重修改彩되었다. 2004년 1월 7일에 사천왕상의 복장물이 개봉된 이후 2차, 3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장물은 인본다라니, 후령통, 묵서, 봉함목, 껌쇠, 잔채물 등인데, 이중

31) 圓宗文類集解, 刊記. '成化十四年戊子歲(세조14, 1468)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全羅道南原府重修'.

32) 瑜伽論疏, 刊記. '天順六年壬午歲(세조8, 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慶尙道安東府雕造'.

33) 林間錄, 刊記. '成化四年戊子歲(세조14, 1468)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慶尙道尙州牧重修'.

34) 大乘起信論筆削記, 刊記. '天順六年壬午歲(세조8, 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全羅道全州府雕造';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刊記. '天順六年壬午歲(세조8, 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全羅道全州府雕造'.

35) 菩提達磨四行論, 刊記. '天順八年甲申歲(세조10, 1464)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全羅道南原府重修'.

36)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권1-6 卷末刊記. '天順五年辛巳歲-七年甲申歲(세조7-9, 1461-63)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慶尙道尙州牧重修'; 권7, 刊記. '天順七年甲申歲(세조7-9, 1461-63)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慶尙道安東府雕造'.

37) 俱舍論頌疏鈔, 1권 卷末刊記. '天順七年癸未歲(세조8, 1463)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慶尙道晉州牧雕造'; 天順六年壬午歲-七年癸未歲(세조7-8, 1462-1463)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慶尙道尙州牧雕造'.

전적은 북방다문천왕에서 1종1책, 서방서방광목천왕에서 2종2책, 남방증장천왕에서 1종1책, 동방지국천왕에서 9종10책으로 도합 12종14책이 발굴되었다.

3) 복장은 정장인 大威德經陀羅尼 卷4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이들 교장 11종중 科註妙法蓮華經 卷7은 충숙왕 4(1317)년에 간행된 사찰본이 그대로 전래된 것이다.

첫째, 간경도감이 판각용정서본을 마련하여 판각한 것은 金剛鉅顯性錄 卷3·4인데 申敬數가 세조7(1461)년에 직접 판본을 쓰고, 盧思愼, 海超, 雪峻이 校勘한 것이다. 이는 신편제종교장총록에 나타나지 않으며, 사본으로 전래된 것을 간경도감에서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法華文句記 卷5·6·7·8은 刊經都監翻刻後印補刻混入本인데, 교장도감본을 정서하여 번각한 판이고, 간경도감의 분사에서 독자적으로 정서하여 보판하거나 후대에 다시 인쇄한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장 불사의 시기는 늦어도 인조 6(1628)년 이전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간경도감이 고려조의 사찰본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한 2종중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은 韶顯이 金山寺 廣教院에서 宣宗 8(1091)년 8월에 착수하여 9(1092)년 6월에 필역하여 그해 8월에 간행한 것이고, 成唯識論述記 卷6은 권말에 간행기록은 없지만, 인왕호국만약경소법형초권5·6과 판식이 같고, 금구금산사혜덕왕사비문에 간행기록이 있어 금산사의 광교원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간경도감이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으로는 妙法蓮華經續述 卷5·6, 妙法蓮華經玄義 卷第3·4,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成唯識論義景鈔 卷12·19의 6종인데, 이들 자료중 교장도감본의 성격을 제시해주는 두개의 자료가 있는데, 妙法蓮華經續述 卷5·6과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이다.

4) 교장의 전래본은 30여종 정도 된다. 이번에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에서 11종의 교장이 추가 발굴됨으로써 기존에 발굴된 교장을 보완하게 되었다.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것 중 妙法蓮華經玄義 卷3·4, 妙法蓮華經續述, 卷5·6,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 法華文句記, 卷5·6·7·8, 成唯識論述記, 卷6, 成唯識論義景鈔, 卷12·19,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仁王護國般若經

疏法衡抄, 卷5·6은 모두 번각본이다.

기존의 전래본과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교장을 비교해보면, 교장도감본과 간경도감본의 판본별 성격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장도감본은 우선 송·요·일본에서 수집한 것을 그대로 번각 수용한 것, 필사본을 수입한 것은 고려에서 교감하여 새로 판각용정서본 즉 판서본을 써서 교감하여 판각한 것, 혜덕왕사를 중심으로 김제 금산사 광교원에서 간행한 것, 송에서 경판을 간행해서 직접 가져 온 것의 네 종류가 있다. 이중 이번에 발굴된 것중에는 필사본을 수입한 것은 고려에서 교감하여 새로 판각용정서본 즉 판서본을 써서 교감하여 판각한 것으로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가 있고, 혜덕왕사를 중심으로 김제 금산사 광교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과 成唯識論述記, 卷6이 있다.

둘째, 간경도감본은 의천의 교장 조조 이전부터 금산사 광교원에서 개판해온 것을 번각한 것, 의천이 홍왕사에서 개판한 판본을 중수한 것, 고려각본을 중수한 것, 간경도감이 독자적으로 판서하여 奉教雕造한 것의 네 종류가 있다. 이중 이번의 발굴본중에는 금산사광교원본을 번각한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과 成唯識論述記, 卷6이 있고, 의천의 홍왕사본을 번각한 것중 요송의 간본을 번각한 것으로 간기가 있는 것은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이 있으며, 독자적으로 판서하여 번각한 것으로는 金剛鉅顯性錄 卷3·4가 있다.

#### <參考文獻>

강건기 외, 『송광사』, 서울: 대원사, 1994.

古鏡, 『송광사천왕문사천왕상』, 순천: 松廣寺聖寶博物館, 2004.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大屋德城, 『高麗續藏經造放·新編諸宗教藏總錄』, 京都: 便利堂, 1936.

朴相國, 「義天의 教藏-教藏總錄의 編纂과 教藏刊行에 관한 再考察」, 『普照思想』11

집(普照思想研究院, 1998). p. 77-99.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松廣寺聖寶博物館,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서울: 대학사, 2004.

新文豐編審部, 『新編卍續藏經總目錄』, 臺北: 新文豐出版股份有限公司 1977.

義天, 『大覺國師文集』, 麗刻木板本.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活印本影印版(1970).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임석진, 『대승선종조계산송광사지』, 서울: 불일출판사, 1965.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東國文化社, 1964.

韓國學文獻研究所,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篇.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 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회, 2000, p.279-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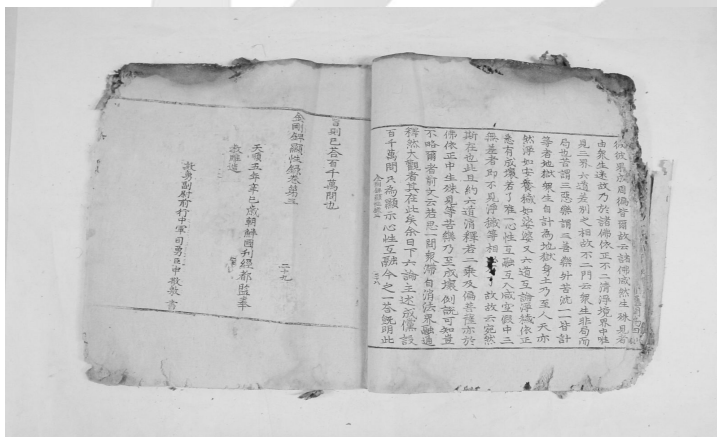
한국불교연구원, 「송광사」, 『한국의 사찰』 6, 서울: 일지사, 1984.



부록: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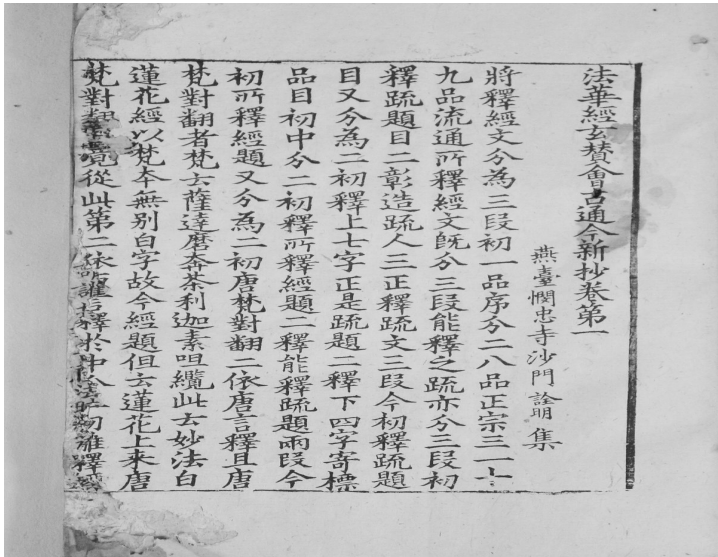
<그림 1-1> 금강비현성록 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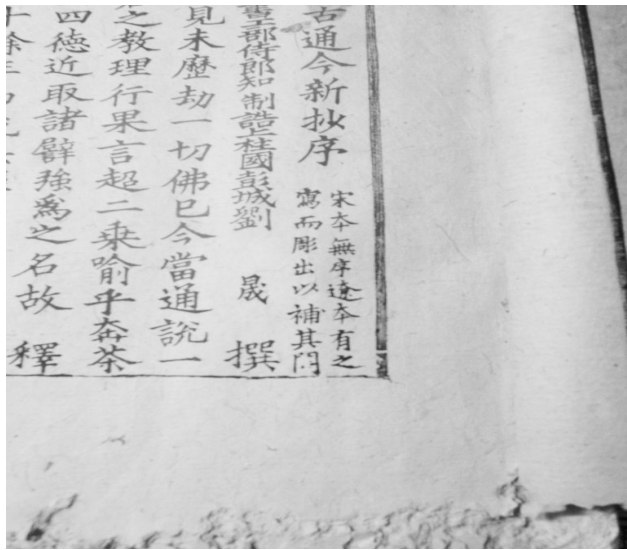
<그림 1-2> 금강비현성록 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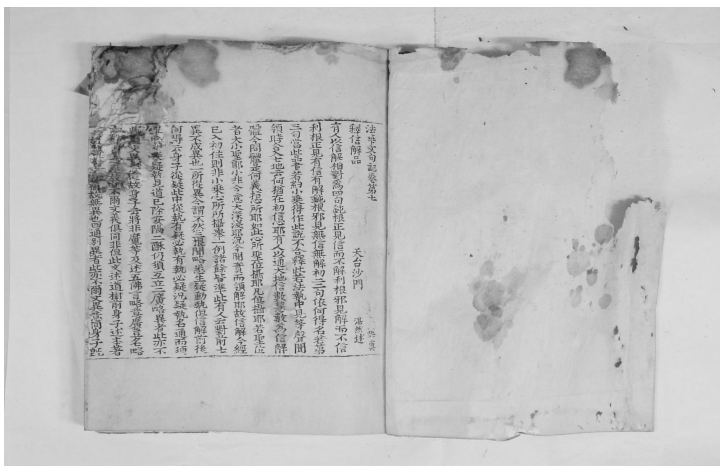
〈그림 1-3〉 금강비현성록 권4 말 필사자 및 교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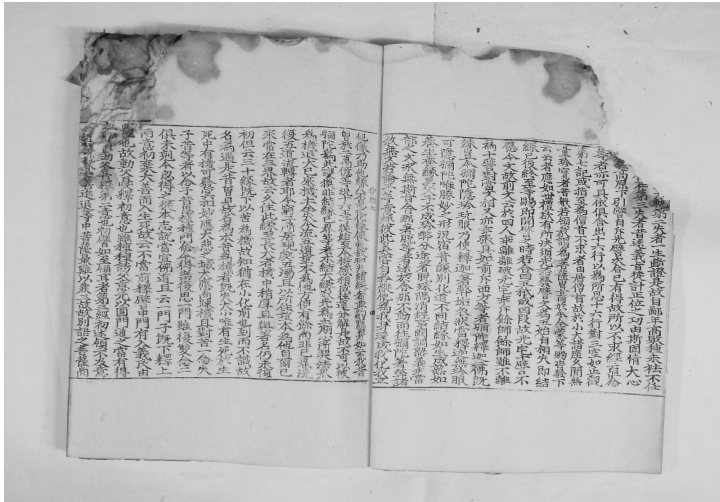
〈그림 2-1〉 법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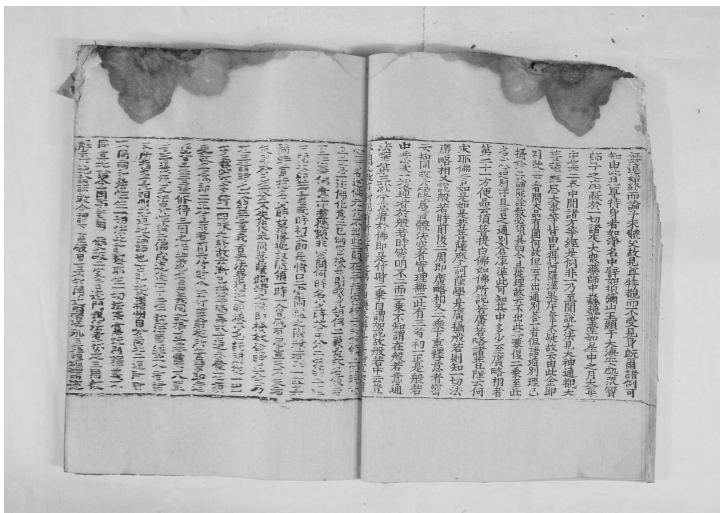
〈그림 2-2〉 법화경현찬회고동금신초- 서문필서보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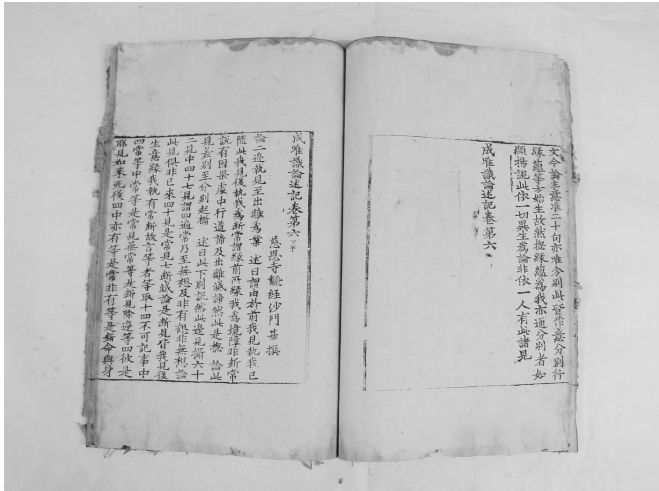
〈그림 3-1〉 법화문구가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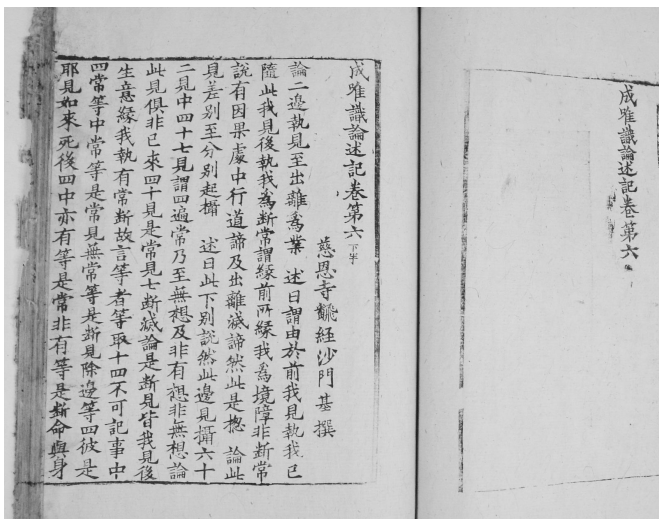
〈그림 3-2〉 법화문구가 간경도감에서 필서보각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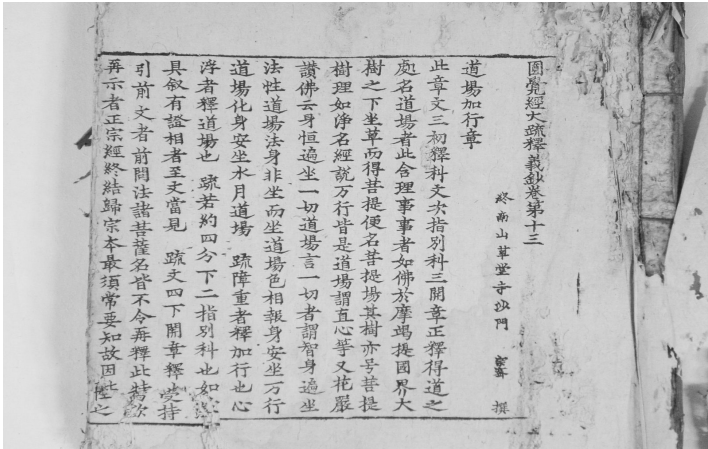
〈그림 3-3〉 법화문구가 16세기 후인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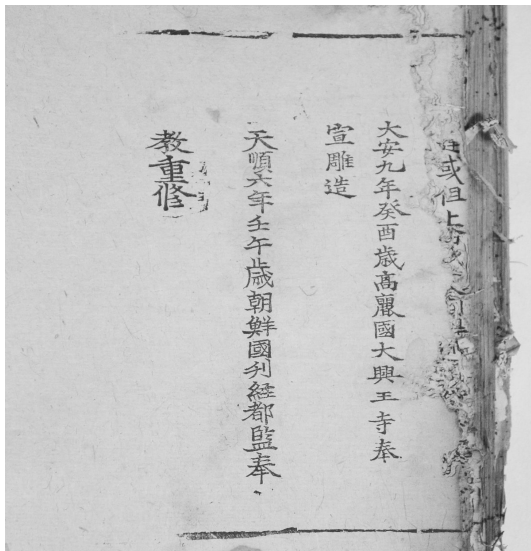
〈그림 4-1〉 성유식론술기 권6 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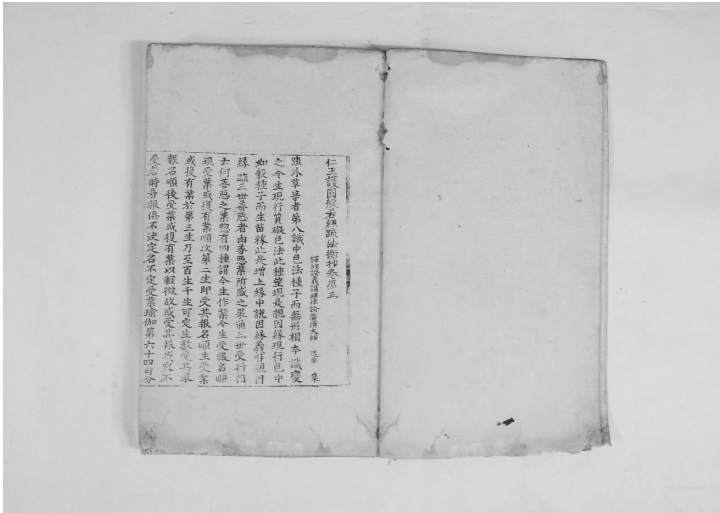
〈그림 4-2〉 성유식론술기 권6 하반



〈그림 5-1〉 원각경대소석의초 권3



〈그림 5-2〉 원각경대소석의초 권말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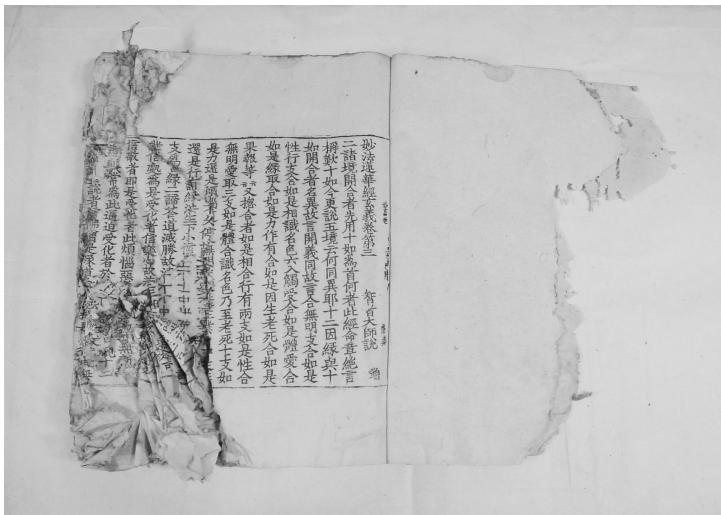
〈그림 6-1〉 인왕호국반야경법형초권 5



〈그림 6-2〉 인왕호국반야경법형초-금산사광교원간행기



〈그림 7〉 과주묘법연화경 권말간기 延祿년



〈그림 8〉 묘법연화경현의 권3(遼 함차)